

지역 소식 통

부안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상 수상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이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평가군별 상위 6위 이내 기관에 수여되는 포상 대상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종합평가 17개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확보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소를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부안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망을 구축한 시점이 핵심 성과로 평가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공음면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고창군 공음면의 숙원인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5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지난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공음실내체육관에서 '칠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칠암천은 구암천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접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하천이었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272억원을 투입해 202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5.8km의 전 구간에 대해 홍수대응 제방보강과 교량 재가설 11개소 등 하천정비를 완료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위드이엘, 정읍 산업단지에 투자

총 65억 규모 · 18명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핏푸드 기업인 (주)위드이엘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주)위드이엘 이현욱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위드이엘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8313.5㎡(약 2515평) 부지에 총 65억원을 투자, 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최신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올해 안에 생산시설 건립에 착공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주)위드이엘은 핏푸드 브랜드 '헬리코'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이번 정읍공장 신설 투자를 통해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여러 연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부자재는 지역 농가



등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핏푸드 산업에서 떠오르는 기업인 위드이엘의 정읍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현욱 (주)위드이엘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환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지역 농가 등과 긴밀히 상생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5년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SA등급' 2년 연속 달성

부안군, 공약 완료율 63.8% · 전국 평균 대비 10.75% 높아... 군민과의 약속 충실히 이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5월 15일 발표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부안군이 2년 연속 SA등급을 달성하며, 공약 신뢰도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률 △목표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정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안군은 총 80건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51건을 완료했으며, 27건이 정상추진 단계에 있어 공약이행 완료율 63.8%로 전국 평균(53.05%)보다 높은 수치로 우수한 이행 실적을 보여준다.

특히, 부안군은 매분기 공약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했으며, 공약 추진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신뢰행정 시스템으로서 높은 신뢰를 얻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공약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 중심, 신뢰받는 부안군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안전 · 편의성 확보 위한 현장 행정 펼쳐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주요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지난 15일 진행된 현장 방문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이 시장은 내장산 케이블카, 기적의 놀이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운영 실태와 시설관리 상태를 직접 면밀히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과 함께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첫 방문지인 내장산 케이블카 현장에서는 정차 시 차량이 흔들리며 승강장과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점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승부승강장 내 화장실 신축과 교통약자를 위한 하부승강장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도 함께 지시했다.

이어 방문한 기적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놀이기구의 경사를 완화하고 목재 마감 부분을 정비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문화광장과 기적의 놀이터 사이 도로의 차량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은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와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팀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 · 생태 · 에너지분야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고창군, 주한영국대사관과 '기후 · 생태 ·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고창군은 지난 16일 개러스 위어(Careth Weir) 주한 영국 부대사와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팀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 및 생태, 에너지분야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러스 위어 부대사는 영국 외 · 개발부(FCD)의 고위직을 역임한 기후 외교 전문가로, 네팔과 모잠비크등지에서 국제 개발 및 기후 정책 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로 재직중에 있다.

이번 방문은 주한영국대사관이 15~16일 해상풍력 현장 탐방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영국 측에서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 아미르 파텔 경제외교참사관,

조나단 우드랜드 기후에너지팀장이 참석했으며, 고창군에서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4명이 함께해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국대사관 측은 고창군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보전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전을 칭찬하고, 이어서 (주)한국해상풍력발전운영센터 및 탐사·로그아웃발전센터 방문에 현장을 둘러봤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간 생태, 기후 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첨단산업 입주기업협의회 창립 간담회

정읍시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15일, 첨단과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협의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회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 창립이 필요하다는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여 명의 기업 대표가 참석해 창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협의회 정관 마련, 초대 회장단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 공식적인 창립 준비를 본격화해 올해 안에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창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오는 20일에는 제8산업단지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협의회 발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입주기업협의회 창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별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면 기업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행정과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